

지역 소식통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
공식 홈페이지 운영 '스타트'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의 정보교류와 경제, 법률 상담 등을 돕기 위해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 본격 운영한다.

기존에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나 자문 서비스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밴드 등 SNS 서비스를 이용해 회원들만 서비스 접근이 가능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읍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http://jb-jongup.kfme.or.kr> 주소를 접속하거나 정읍시 홈페이지(<http://jongup.go.kr>) 하단에서 배너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된다.

홈페이지 메뉴는 지원사업, 정보마당, 상담센터, 온라인 장터 등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정읍=김대환기자

상서 여성 의용소방대
버스승강장 방역소독

부안 상서면 여성 의용소방대(대장 백종년)는 지난 19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감염원 유입차단을 위해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일환으로 관내 버스승강장 34개소를 다니다 자살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방역봉사활동에는 상서면 여성 의용소방대원 20명이 참여 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가오는 추석명절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34개소 버스승강장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과 함께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다.

한편 송경애 상서면장은 "상서면 여성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발적인 방역 봉사활동에 감사한다"고 말하며 "모든 시민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번 추석 명절엔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철저한 개인방역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동리대상'에 박계향 명창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 11월6일 시상식

판소리 전승·보급 앞장... 현재 후학양성 매진

대한민국 판소리 최고 권위의 '동리대상'에 박계향 명창이 선정됐다. 21일 '제30회 동리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정병현)'는 판소리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박계향(본명 박길연) 명창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오는 11월6일 동리국악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 도록 공부로 소리에 입문했다. 여학교를 마치던 16세 때 보성 정음민 선생 문화생으로 정식 소리 공부를 하면서 춘향가와 심청가를 사사 받았다. 이후 강도근 선생께 적벽가와 수궁가를 박초월 선생께 수궁가를, 김소희 선생께 흥보가를 사사 받아 판소리 다섯바탕 모두를 익히게 됐다.

젊은 시절 임춘영 국극단과 김연수 명창단에서 전국 순회공연을 다니며 소년명창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우리국악단에 입단해 박동진 선생의 지도로 소리 명성을 쌓아갔다.

42세부터 20년간 서울 인사동에 판소리 학원을 열어 후학지도에 최선을 다했고, 2012년부터 판소리 불모지였던

인천의 판소리 전승과 보급을 위해 학원과 판소리보존회 인천지부를 개설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1987년 제13회 전주대사습놀이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해 명창 반열에 오르고, 1988년 한국예술총연합회 예술문화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국내·외 주요 공연에 참가해 판소리를 세계에 널리 알렸고, 판소리 완창 발표회를 수차례 열었다.

'동리대상'은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해 동리 신재호 선생의 문화예술 사적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판소리 진흥에 업적을 남긴 사람(법인 포함)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오는 11월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시상식에서는 박계향 명창과 제자들이 꾸미는 판소리 한마당 공연도 같이 열릴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은 지난 19일 오후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고창 멜론 싱가포르 수출 기념식'을 열었다

고창 황토멜론, 싱가포르 수출길

대한민국 최고 멜론으로 인정받고 있는 고창 멜론이 싱가포르 수출길에 오른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고창 멜론 싱가포르 수출 기념식'을 열고, 11월 말까지 항공편 2회와 선박을 통한 수출이 진행된다.

이번 수출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수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의 성과다.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통해 국내 농산물 수출확대를 목표로 황토멜론연구회(회장 김하진)가 함께 하고 있다.

고창군과 황토멜론연구회는 고창 멜론의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와 수출 관련 협의 ▲기관합동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 ▲곡성멜론주식회사 벤치마킹 ▲수출 바이어(고려무역) 미팅 ▲수출 멜론 평가회 등 충분한 시장조사

를 거쳤다. 고창멜론은 전 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청정 이미지는 물론, 게르마늄이 풍부하고 단위면적당 연1톤 이상 벗짚 투입으로 고초균 등의 유용미생물이 풍부한 환경에서 재배돼 품질이 좋고, 시장 선호도가 높다.

특히 고창 멜론 경진대회와 온라인 경매행사 최고가 낙찰 소비자가 선정된 품질민족대상(4년 연속) 수상 등 국내 소비자 인지도가 급상승하며, 수출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홍콩 등 다른 나라에서도 고창 멜론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며 "고창군은 품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지원으로 고창 멜론을 국가대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명절맞이 녹지공간 정비 '구슬땀'

시내 주요 공원·가로수 등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내 주요 공원과 가로수 등 녹지공간 정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공원 등 도시공원 18개소 ▲단풍생태공원 등 도시숲 14개소 ▲칠보산등산로 등 20개 노선 ▲비봉입도 등 18개 노선 ▲단풍 100리길 등 주요 가로수 식재 구간 30개 노선에 대해 명절 연휴 전 정비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여름은 잦은 비로 잡초 발생이 많았던 만큼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해 수시로 예초작업을 진행하고, 무성하게 자란 가로수를 정갈하게 다듬어 주고 있다.

또한, 명절을 맞아 조상의 묘지를 찾는 성묘객들의 안전을 위해 주요 등산로와 입도 노면 점검, 풀베기 등 정비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기 도시 정읍과 맞는



정읍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내 주요 공원과 가로수 등 녹지공간 정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주요 가을꽃인 꽃향유, 구절초, 은목서 등을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정읍천 자전거도로와 도심 주요 화단 등에 식재해 좋은 향기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 일

상에 위로를 주고 있다. 김양호 과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분들이 녹지공간에서 위로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농촌재능 기술사업단 운영 협약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하남선)는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송병철), 부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센터장 정영돈)와 2020년 농촌재능 기술사업단 운영 업무협약을 지난 18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농촌재능 기술사업단은 귀농귀촌인 또는 재능기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의 재능기부 활동을 지원하여, 농촌마을에 기술을 전수하고 농민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운영된다.

이번 운영 업무협약을 통해,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2020년 농촌재능 기술사업단 총괄을 맡고,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사업대상

자 선정 및 홍보, 부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협력체제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하남선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재능기부자들이 역량을 발휘하며 마을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 상생과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간부 공무원들 '나눔의 손길'

6개 시설·단체에 위문품 전달

정읍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문 활동을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간부 공무원들은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 복지 시설과 단체를 위문한다고 밝혔다.

시설과 단체에 수요가 많은 백미, 물티슈 등 위문품을 전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심한 복지 행정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간부 공무원들은 21일 노인요양시설인 들꽃마을과 장애인 복지 시설인 만복원 등 6개 시설과 단체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현재 이들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면회와 외출, 외박 등이 제

한되고 있어 생활자와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생활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